

코리아더커드, 다향오리 설 선물세트 출시



코리아더커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리고기 제품으로 구성된 '다향오리 설 선물세트 5종'을 지난 1월 14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다향오리 설 선물세트는 사전 주문 받은 수량만큼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오더메이드(Ordermade)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 특징이다. 사전

에 대량 생산해 제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거나 물량 밀어내기의 선물세트가 아닌 맞춤생산과 직배송 방식으로 가장 신선한 제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제품 구성에 따라 최저 5만원대를 비롯해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되었다. 다향오리 스페셜 세트 2종은 1등급 무항생제 원료육을 사용한 훈제슬라이스 제품 위주로 구성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선물할 수 있다. 이마트 성수, 은평, 용산점을 비롯한 53개 이마트 매장을 통해서만 특별 한정 판매되었다. 또 프리미엄 덕 세트 2종은 훈제슬라이스를 비롯해 신제품 오백선 후랑크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훈제슬라이스 및 오백선 후랑크 등을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백에 담아 실용성을 더한 '다향오리는 순하다' 세트도 판매되었다. 코리아더커드 기획실 박은희 상무는 "다향오리 설 선물세트는 우수한 품질뿐 아니라 감각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고려해, 맞춤생산 후 배송하는 방식과 함께 특별 캘리그라피 디자인 패키지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조지민 기자 [2014. 01. 14]

코리아더커드, AI대비 ‘비상근무 체제’ 돌입

코리아더커드가 AI 확산 방지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박은희 코리아더커드 상무는 1월 20일 “AI에 대비해 본사 사육부와 기획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며 “자체 농장들이 방역 기준상 안전한 수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AI로 인한 제품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더커드는 2003년부터 AI에 대비해 철저한 출입 인원 통제와 방역시스템 구축, 야생동물의 분변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농가 운영 등 다년간에 걸쳐 농가 시설은 물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외부 오염원과 접촉을 차단해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흘린 분뇨 등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한 밀폐형 종오리 농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오리 사육 농장을 지붕이 있는 농장으로 운영해 철새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배설물 접촉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매일 사육부에서 직접 오리 농가를 방문해 오리들의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방역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농가의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가공 공장 또한 해썬(HACCP)인증을 받은 무균 설비를 갖추고 밀폐형으로 운영하며 오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상무는 “다년간에 걸친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데다 코리아더커드의 자체 농장들은 이번 AI 최초 발생지인 전남 고창으로부터 최소 1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 감염의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확대를 막기 위해 ‘스탠드스틸(Standstill·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이 전라도 지역에 시행된 것과 관련해 “AI에 의한 불안감 확대와 스탠드스틸 조치로 인해 약 5~8억원대의 일 매출 손실이 예상되지만,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부의 긴급행동 지침을 준수하며 AI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4. 01. 20]

(주)모란식품 방문한 국회 농해수위, AI방역 점검 후 오리시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본회 회원사인 (주)모란식품(대표 김만섭)을 방문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위원장과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김춘진(전북 고창·부안)·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 4명과 이

동필 장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필용 음성군수 등은 모란식품 AI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섰다.

최규성 위원장은 “AI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오리 등의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도 “AI 발생지역이 아직 더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시중에 나온 오리 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곧바로 모란식품 구내식당으로 이동해 회사 측에서 조리한 다양한 오리 고기 음식을 시식하며 소비 촉진 지원을 약속했다.

동아원, DREAM TOGETHER ‘2014년 사업전진대회’ 개최

동아원(주)(대표이사 이창식) 사료BU(대표 노정호)가 지난 1월 17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DREAM TOGETHER(드림투게더)’란 슬로건을 내걸고 ‘2014년 사업전진대회’를 개최, 올해 목표



달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3년 동아원 발자취에 이어 사료BU인재상, 동아원을 빛낸 사람들에 관한 동영상을 시

청했고, 노정호 대표의 2014년 사업 전략 발표에 이어 목표 수여식, 2013년 우수 실적 직원 및 대리점 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사료BU는 이날 동아원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그에 걸맞은 롤모델을 소개해 관심이 쏠렸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요소별 인물을 매칭해 발표했다. 이날 소개된 인재상은 ▲소통(오프라윈프리) ▲도전(김연아) ▲창조(스티브잡스) ▲가치지향(빌게이츠) ▲인화(유재석) 총 5가지이다.

노정호 대표는 “2013년은 전 축종에 거친 불황이라는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해”라고 밝혔다. 또 “축종별 사료 판매량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종합사료회사로의 기반을 다지고 전국 어디서나 동아사료가 판매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 다수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전국 판매유통망을 확장했다. 또한, 영국 프리미어 뉴트리션과 기술제휴를 통해 양돈과 오리사료의 기술을 한 단계 향상하고, 지역부장을 대상으로 벌인 축종별 교육과 전국적으로 개최한 대형 사양가 세미나는 지역부장의 전문화와 판촉 능력을 한층 향상하는 등 핵심역량을 강화시킨 해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2012년에 시작한 고객포털사이트인 ‘F-World’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어, 올해에도 더욱 발전시켜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업계 1위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오리 사료의 경우 2012년 업계 1위로 올라선 이후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2013년에도 1위를 유지하였고, 새우 사료는 전년대비 170%의 신장률을 보이며 M/S 60%로 업계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그동안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사료BU는 2014년에는 핵심역량을 보다 극대화 시키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상시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자체 연구농장을 마련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전 축종에 걸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축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료를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